

희.망.을.
찾다

／ 미래를 읽다

21세기 소리 없는 싸움, 종자 전쟁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키워드는
식량이다. 21세기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종자 전쟁이 예고되는
만큼 농업 생산의 중요한 기반인 종자의 공급력을 확보한
국가와 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하다.

글 이철호

농민의 손을 떠난 씨앗

종자가 뭉기에 전쟁이 될까? 종자는 전통적으로 우리 농부들이 수확한 작물 중에서 좋은 씨앗을 골라 다음 해에 다시 뿌리는 것을 말한다. 수천 년 동안 이런 선별 육종으로 농업은 발달해 왔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종교배로 일어나는 잡종강세 현상을 이용하여 교배종 씨앗을 만들거나, 방사선 조사나 화학물질 처리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종자를 개발하여 다수확 고품질의 신품종을 만들게 되었다. 최근에는 식물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유전자 서열의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삽입하여 재조합하는 분자 육종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 종자는 농민의 손을 떠나 육종가들에 의해 제조되고 판매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꾸러미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농부에게 종자야말로 내일의 희망이고 풍요의 상징이다. 농민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던 종자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농사에 필수적인 종자를 매년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농민이 종자회사에 의존하게 되고, 농업이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종속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종자 주권 상실한 우리의 현실

1997년 12월에 시작된 IMF 구제금융 위기를 2001년 8월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삼페인을 터트렸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종자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우리나라 5대 종자회사 중 4개 업체가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간 것이다. 1997년 노바티스는 3,809만 달러에 서울종묘를 인수했고, 노바티스는 다시 세계 3위 종자회사인 신젠타에 합병되었다.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1998년 멕시코의 종자회사인 세미니스에 1억 6,689만 달러에 팔렸고, 2005년 몬산토가 세미니스를 14억 달러에 사들여 세계 최대 종자회사가 되면서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몬산토의 소유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 종자회사인 사카타가 청원종묘를 1,047만 달러에 인수해 갔다.

농부가 굶어 죽어가면서도 꺼안고 붙들고 있는 종자를 이 기간 동안 모두 팔아넘긴 것이다. 종자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전쟁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다. 먹을 게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세계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식량 전쟁이 닥쳐온다고 부르짖는 것은 이러한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에 예속되는 세계 농업

요즘 미국과 캐나다의 농부들도 공룡 기업으로 커져만 가는 종자회사들의 위력을 느끼고 있다. 캐나다의 카놀라 재배 농민 피시 슈미처와 몬산토의 법정 공방은 특허종자에 대한 농민의 반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다. 주변 농가에서 자기 땅으로 유입된 특허종자를 재배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 농민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특허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



세계 농업이 이들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의 과학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원천기술
개발이 필수 조건이다.

으나 연이어 기각당해 골리앗에 힘없이 당하는 농민의 표상이 되고 있다. 세계 농업이 종자 특허를 가진 몇 개 공룡 기업에 예속된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사례다. 1960년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 처음 태동할 때에는 그 의도가 순수했다. 육종가들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더 크게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거치면서 선진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1991년 유포브회의에서는 국제신품종조약 가입 후 10년 후부터 모든 신품종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특허료(로열티)를 내도록 했다. 10년간의 유예기간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미끼다. 후진국들은 대부분 정권이 불안정하고 국제협약에 10년 동안이나 책임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미끼를 문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에 따라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이 조약에 가입했다. 2001년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던 국내 농가의 외국 종자 로열티 지급액은 2012년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미래 식량 생산의 주도권을 잡아라

몬산토를 비롯한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유전자재조합(GM) 콩·옥수수·카놀라·면화 등 특허종자를 개발하면서 세계 종자시장은 급성장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08년 320억 달러에서 현재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기업인 미국의 몬산토가 전체 시장의 23%(2007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듀폰(15%), 스위스의 신젠타(9%), 프랑스의 그룹리마그렌(6%)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5,81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국산 종자 개발과 수출용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10년간 8,149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2억 달러 종자 수출을 목표로 세웠으나, 최근 투자 규모가 4,900억 원으로 줄었다. 201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당초 계획했던 골든시드 프로젝트 예산 450억 원이 반도 안 되는 200억 원으로 삭감됐다. 종자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우리의 안이한 모습이다.

세계는 지금 미래 식량 생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소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유통 가공업체와 연합하여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몬산토는 세계 최대 곡물메이저인 카길과, 신젠타는 ADM사와, 듀폰은 콘아그리식품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다. 이들 곡물 메이저들은 농민들에게 제휴 종자기업들의 특허 품종을 생산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세계 농업이 이들 거대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국제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의 과학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원천기술 개발이 필수 조건이다. 현재 분자유종에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은 대부분 이들 거대기업의 특허 기술이므로 우리가 아무리 유사한 연구를 해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전자 조절 원천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런 신기술을 한국이 먼저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종자산업을 석권하게 되고, 세계 식량 생산을 주도하는 식량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명예교수. 1945년생. 30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2010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국민훈장 석류장·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았으며, 《식량 전쟁》·《음식오케스트라》 등 20여 권의 책을 썼다.